

VIP REPORT



■ 최근 한중일 국가간 M&A 특징 비교 분석
- 샌드위치 코리아 악화 가능성 크다 -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이주량, 주원, 이장균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334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33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최근 한중일 국가간 M&A 특징 비교 분석

- 샌드위치 코리아 악화 가능성 크다 -

Executive Summary	i
1. 문제제기	1
2. 2008년 한중일 국가간 M&A 추이	3
3. 한중일 국가간 M&A 특징 비교	9
4. 정책적 시사점	13
■ HRI 경제 지표	12

1. 문제제기

(경제위기와 글로벌 M&A)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실물위기로 전이되면서 전세계 주식시장이 동반 하락했고, 주요 기업들의 기업가치도 급락하였다. 2008년 세계 주요증시의 등락률은 미국 $\Delta 36\%$, 영국 $\Delta 35\%$, 중국 $\Delta 64\%$, 인도 $\Delta 52\%$, 러시아 $\Delta 72\%$, 그리고 한국 $\Delta 40\%$ 이었다. 한편, 미 달러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2008년 한 해 동안 한국의 원화는 달러대비 32% 절하된 반면 위안화는 8%, 엔화는 23% 절상되었다. **이에 따라 글로벌 M&A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의 실질 기업구매력은 획기적으로 상승하였다.**

(중국, 일본과 글로벌 M&A의 판도 변화) 2008년 11월 기준, 중국과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각각 1조 9,050억 달러와 9,970억 달러로 세계 1, 2위이다. 두 나라의 막대한 외환보유액과 기업구매력 상승,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매물의 급증은 2008년 글로벌 M&A 시장의 판도 변화로 이어졌다. 세계 경제위기로 전세계 M&A 규모가 30% 위축되고, 국가간 M&A는 38% 축소된 것과는 반대로 **중국내 M&A는 44% 증가한 1,590억 달러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본도 해외기업인수가 전년대비 200% 증가한 78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 일본의 M&A와 對 한국 경쟁력) 중국과 일본의 M&A가 단기간에 급증하는 것은 對 한국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의 성공적인 해외기업 인수는 원천기술 습득, 시장점유율 확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미래동력 확보 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2. 2008년 한중일 국가간 M&A 추이

(중국) 2008년 중국의 국가간 M&A는 전년대비 51% 증가한 78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중국기업의 해외기업인수는 전년대비 64% 증가하였고, 해외기업의 중국기업 인수 34% 증가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지난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In/Out bound M&A가 동반 증가한 나라가 되었다. 이는 **중국이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해외기업 인수와 자국기업 매각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산업구조를 선진화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일본) 일본의 국가간 M&A는 844억 달러로 전년대비 16% 상승하였다. 내용상으로는 해외기업의 일본기업 M&A는 $\Delta 71\%$ 감소한 반면,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A는 전년대비 200% 증가하였다. 일본이 이번 경제위기 상황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해외기업 M&A를 진행하였다는 뜻이다. 이 같은 일본의 해외기업인수 증가는 경기 회복기에 일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2008년 한국의 전체 M&A는 35% 감소하였다. 세계 평균 감소치인 29.6%와 미국의 $\Delta 26\%$ 보다는 높고, 영국 $\Delta 67\%$, 독일 $\Delta 65\%$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국가간 M&A는 소폭 감소한 133억 달러였으며, 이 중 해외기업의 국내기업 인수는 25% 증가했고, 국내기업의 해외기업 인수는 6%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이번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국, 일본과 달리 국내기업들은 해외기업 인수에 다소 소극적 이었고, 오히려 인수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주 원인은 원화약세, 외환보유고 불충분 등 거시경제적 이유와 기업들의 생존 위주 전략으로 풀이된다.

< 한중일 M&A 규모 변화 추이 >

(단위 : 억 달러)

	한국			중국			일본		
	2007	2008	변동율	2007	2008	변동율	2007	2008	변동율
전체 M&A	645	417	$\Delta 35\%$	890	1,590	44%	1,680	1,616	$\Delta 4\%$
국가간 M&A	130	133	$\Delta 2\%$	520	784	51%	727	844	16%
Outbound M&A	94	88	$\Delta 6\%$	291	478	64%	370	740	200%
Inbound M&A	36	45	25%	229	306	34%	357	104	$\Delta 71\%$

자료: Thomson Reuters.

3. 한중일 국가간 M&A의 특징 비교

(중국: M&A를 통한 수방위적 기술습득으로 기술격차 축소 지향) 중국은 해외기업 인수 분야를 다양화하여, 전방위적인 기술 수준 향상을 가속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중국의 해외기업 M&A는 규모도 크게 늘었지만, 인수기업의 분야가 부품소재 30%, 전력 및 에너지 11%, 공업 및 제조 9%, 통신 8% 등 이전과는 다른 고른 업종 분포를 보였다. 이는 중국 기업들이 그만큼 다양한 업종에서 해외 선진업체를 인수하고 있다는 것으로 중국의 한중간 기술격차 축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지금의 중국과 비슷한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M&A 보다

Greenfield 방식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했다. 따라서 중국이 전방위적인 해외기업 M&A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선진 기술 습득에 성공한다면, 과거 한국보다 빠른 기술 수준 향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08년 한중일 국가간 M&A 특징 비교 >

(단위 : 억 달러)

	한국	중국	일본
전체규모와 변동율	133 (△2%)	784 (51%)	727 (16%)
전세계 국가간 M&A 대비 비중	1.2%	7.0%	6.5%
Outbound : Inbound	66 : 34	61 : 39	87 : 13
유형	자원확보형	기술추격형	성장동력확보형
주요목적	자원확보 해외시장 점유율확대	전방위적 기술 습득 제조업 부가가치 향상 원부자재 확보	신산업확대 해외금융네트워크 확대
대상 업종/기업	해외유전, 광구, 시장점유율 1위 업체	부품소재, 전력 및 에너지, 공업, 통신	첨단기술, 의료산업, 금융업
주요 사례	호주 맥아더 광산 멕시코만 해상유전 수퍼리어 엑세스	캐나다 Dyrex사 호주 Midwest 철광석	인도 란박시 제약 미국 모건스탠리

(일본: 신성장동력 확보와 금융네트워크 구축에 집중) 일본의 2008년 해외기업 M&A는 미래 성장동력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7년 대비 2008년 일본의 M&A는 금융과 부동산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첨단기술, 의료산업 등 고부가 미래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다이치 산교가 인도의 세계적인 의료제약 기업인 란박시의 지분 43%를 34억 달러 인수한 것은 미래 신성장산업에 대한 일본의 M&A 의지를 잘 나타내주는 사례이다. 또한 미츠비시 UFJ의 모건스탠리의 지분 22% 인수 (78억 달러), 노무라 홀딩스의 리먼브라더스 아시아, 유럽, 중동 법인 인수 (2.2억 달러), 미츠호 은행의 메릴린치 투자 등으로 금융업에 대한 M&A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일본 금융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해외자원개발과 시장확대에 초점, 미래지향적 요인은 부족) 한국의 경우, 중일대비 소극적 해외기업 인수 기조를 유지하면서, 해외자원개발과 해외시장 확대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2008년 해외자원개발투자는 석유·가스 42억 달러, 6대 광물 15억 달러 등 57억 달러로 전년대비 77% 상승하였다. 식음료, 도소매, 전선 분야에서 해외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현지 1위 업체 인수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첨단기술 습득, 성장동력 확보, 향후 인수 프리미엄 등 미래지향적 요인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4. 정책적 시사점

첫째, 첨단기술 확보, 신성장동력 발굴 등 기술지향적 해외 M&A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들은 Greenfield형 기술개발에 치중하지 말고, 경제위기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BT, NT, RT 등 첨단 미래 기술 분야의 선진국 벤처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인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도 미래 지향적인 해외기업 M&A는 별도로 관리하고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의 차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금융부분의 M&A 투자를 확대하되, 지역법인 또는 사업부 단위의 부분 M&A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현재 금융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기업 가치가 가장 하락한 산업으로 경기회복기에 높은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또한 법인단위, 사업부 단위의 매각도 빈번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금융업의 선진화 및 해외진출을 위한 선진업체의 부분적 인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노무라 증권이 리먼브라더스 유럽 법인을 2달러에 취득한 것은 좋은 사례이다.

셋째, 해외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보강이 필요하다. 해외기업 M&A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M&A를 위한 금융지원기능, M&A 전문인력 등이 부족하여 해외기업 M&A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GDP 대비 M&A 비율은 세계평균은 물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네덜란드 보다 낮다. 따라서 해외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금융, 인재, 법제도 인프라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일본과의 기술격차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중국과 일본은 해외 선진기업 인수를 대폭 확대하였다. 따라서 경기회복기에 중국의 기술추격이 당초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 또한 첨단기술 분야의 기업 인수를 확대한 일본이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도 커졌다. 따라서 577전략 등 국가 R&D 전략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과학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중일 국가간 M&A 특징 비교 분석

- 샌드위치 코리아 악화 가능성 크다 -

1. 문제제기

○ 경제위기와 글로벌 M&A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실물위기로 전이되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동반하락하고, 주요 기업들의 기업가치 급락
 - 2008년 세계 주요증시의 등락률은 미국 $\Delta 36\%$, 영국 $\Delta 35\%$, 중국 $\Delta 64\%$, 인도 $\Delta 52\%$, 러시아 $\Delta 72\%$, 그리고 한국 $\Delta 40\%$ 로 나타남
-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2008년 세계 M&A 시장**은 전년보다 **30%** 감소하여 **2005년 수준**으로 위축되었고, **5년 연속 성장세**도 마감
 - 2008년 세계 M&A 시장은 2007년 보다 29.6% 감소한 2조 9,000억 달러
 - 2008년 4분기 M&A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37%, 전기 대비 35% 하락한 5,558억 달러로 연말로 갈수록 크게 위축되는 양상
- **2008년 국가간 M&A 규모**는 전체 M&A 규모의 감소폭 보다 약간 더 감소하였고, 지역별로는 미국, 영국 등의 감소폭이 컸음
 - 2008년 전세계 M&A 규모에서 국가간 M&A가 차지하는 비중은 38.4%였으며, 금액으로는 1.1조 달러에 달함
 - 전년대비로는 38.5% 하락한 것으로 지역적으로는 미국, 영국, 호주, 독일의 감소폭 전체 감소 규모의 50%를 차지

○ 중국, 일본과 글로벌 M&A의 판도 변화

- 지난 몇 년간 중국과 일본은 각각 제조업 중심의 고속 성장과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구축하였음
 - 2008년 11월 기준, 중국과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각각 1조 9,050억 달러와 9,970억 달러로 세계 1, 2위를 차지
- 한편, 미 달러화의 약세로 위안화와 엔화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중국과 일본의 글로벌 실질구매력 증가
 - 금융위기로 인한 미 달러화의 약세로 2008년 한 해 동안 미 달러 대비 위안화는 8%, 엔화는 23% 절상된 반면 한국의 원화는 달러 대비 32% 절하되었음
 - 이 같은 통화절상은 글로벌 M&A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의 실질 기업구매력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킴
- 외환보유고 증가 및 통화절상으로 인한 중국, 일본의 구매력 증가는 글로벌 M&A의 판도 변화 유발
 - 2008년 중국내 M&A는 44% 증가한 1,590억 달러 기록, 일본에서는 해외기업 인수가 전년대비 200% 증가한 78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최대치 달성
 - 이는 세계 경제위기로 전세계 M&A규모가 30% 위축되고 국가간 M&A가 38% 축소된 것과는 대조적
 - 2008년 M&A시장은 전년대비 각각 유럽 27%, 중동/아프리카 39%, 미국 37% 감소하였으나, 중국이 포함된 아시아 지역은 8.7% 감소

○ 중국, 일본의 M&A와 對 한국 경쟁력

- 중국과 일본의 M&A 급증은 對 한국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침
 - 글로벌 경쟁시대의 성공적인 해외 기업 인수는 원천기술 습득, 시장점유율 확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미래동력 확보 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 중국과 일본이 M&A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2. 2008년 한중일 국가간 M&A 추이

□ 중국

○ (현황) 전세계 국가간 M&A 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Inbound M&A와 Outbound M&A가 동반 증가한 나라

-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M&A 규모는 전년대비 44% 증가하였고, 국가간 M&A는 51% 증가
 - 2008년 중국의 M&A 규모는 전년대비 44% 증가하여 금액기준으로 사상최대인 1,590억 달러에 달함
 - 2008년 국가간 M&A는 전체의 49%인 780억 달러였으며, 이는 전년의 520억 달러 대비 51% 증가한 수치
- 국가간 M&A 중에서 Outbound M&A는 전년대비 64% 증가하였고, Inbound M&A는 21% 증가하여 Outbound의 상승폭과 규모가 컸음
 - Outbound M&A는 전년의 291억 달러 보다 64.4% 증가한 478억 달러이며, Inbound M&A는 전년의 229억 달러 보다 34% 증가한 306억 달러 기록
 - 국가간 M&A에서 Outbound M&A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56%에서 2008년 61%로 6%p 상승

< 중국의 M&A 규모와 추이 >

(단위 : 억 달러)

	2007	2008	증가율
전세계 M&A	4조 1692	2조 9,000	△30%
중국 전체 M&A (①)	1,104	1,596	44%
국가간 M&A (②)	520 (100)	784 (100)	51%
Outbound M&A	291 (56)	478 (61)	64%
Inbound M&A	229 (44)	306 (39)	34%
국가간 M&A / 전체 M&A (② / ①)	47	49	2%p

자료: Thomson Reuters.

샌드위치 코리아 약화 가능성 크다

-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M&A**시장의 활성화시키고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함
 - 중국은 높은 외환보유고와 위안화가치 상승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해외기업 인수와 자국 기업 매각을 진행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자국기업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선진기업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산업구조를 선진화할 수 있음

□ 일본

- **(현황)** 경제위기로 전 세계 시장에 **M&A**매물이 속출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M&A**에 나서고 있음

- **2008년** 국가간 **M&A**는 일본 전체 **M&A**의 **52%**인 **844억** 달러였으며, 이는 전년의 **727억** 달러 대비 **200%** 상승
 - 일본은 Outbound M&A 건수가 전체 국가간 M&A의 87%에 달할 만큼 공격적인 Outbound M&A에 나서고 있음
 - 2008년 일본의 M&A 규모는 전년대비 3.8% 감소하였으나 전 세계 M&A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2007년 4%에서 5%로 증가하였음

< 일본의 M&A 규모와 추이 >

(단위 : 억 달러)

	2007	2008	증가율
전세계 M&A	4조 1692	2조 9,000	△30%
일본 전체 M&A (①)	1,680	1,616	△4%
국가간 M&A (②)	727 (100)	844 (100)	16%
Outbound M&A	370 (51)	740 (87)	200%
Inbound M&A	357 (49)	104 (13)	△71%
국가간 M&A / 전체 M&A (② / ①)	43	52	9%p

자료: Thomson Reuters.

- 국가간 M&A 중에서도 Inbound M&A는 71% 감소하는 반면, Outbound M&A는 전년대비 200% 증가
 - Outbound M&A는 전년의 370억 달러 보다 200% 증가한 740억 달러이며, Inbound M&A는 전년의 357억 달러 보다 71% 감소한 104억 달러
 - 국가간 M&A에서 Outbound M&A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51%에서 2008년 87%로 상승

< 2008년 일본이 관여한 10대 M&A 거래 >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금액	피인수자	인수자	인수기업의 국적	피인수기업의 국적
1	11,091	SANYO Electric Co Ltd	Panasonic Corp	Japan	Japan
2	8,128	Millennium Pharmaceuticals Inc	Mahogany Acquisition Corp	United States	United States
3	7,839	Morgan Stanley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Inc	Japan	United States
4	6,040	Coca-Cola Amtil Ltd	Investor Group	Japan	Australia
5	4,692	Philadelphia Consolidated Holdings Corp	Tokio Marine Holdings Inc	Japan	United States
6	3,707	UnionBanCal Corp, CA	Bank of Tokyo-Mitsubishi UFJ Ltd	Japan	United States
7	3,442	Ranbaxy Laboratories Ltd	Daiichi Sankyo Co Ltd	Japan	India
8	3,120	Nacionale Minerios SA	Investor Group	Japan	Brazil
9	2,829	Ashkaga Bank Ltd	Investor Group	Japan	Japan
10	2,763	Senoko Power Ltd	Lion Power Holdings Pte Ltd	Singapore	Singapore

자료: Thomson Reuters.

샌드위치 코리아 악화 가능성 크다

- 일본 기업들은 적극적인 해외기업인수로 글로벌 경쟁력 향상하기 위해 노력
 - 경제위기 상황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해외기업 M&A를 진행하고 있음
 - 일본의 해외기업인수 증가는 기술이전 및 해외 네트워크 확장을 피하여 경기 회복기에 일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

- (현황)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의 국가간 M&A는 감소한 가운데, **Outbound M&A가 감소하고, Inbound M&A 25% 증가**

-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의 M&A는 전년에 비해 **35%**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 평균인 **29.6%**를 웃도는 수준임
 - 2008년 한국의 M&A건수는 지난해 772건에서 1133건으로 증가하였음
 - 하지만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거래 당 액수는 급격하게 하락하여 2008년 M&A규모는 전년 대비 35%수준으로 하락함
 - 이는 세계 평균 감소치인 29.6%와 미국의 $\Delta 26\%$ 보다는 높고, 영국 $\Delta 67\%$, 독일 $\Delta 65\%$ 보다는 낮은 수준
- **Outbound M&A가 전체 국가간 M&A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 반면, Inbound M&A는 25% 증가하였음**
 - Outbound M&A는 전년의 94억 달러 보다 6% 감소한 88억 달러이며, 전체 국가간 M&A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 가량 감소하였음
 - 한편 해외기업의 국내기업 인수 규모는 전년의 36억 달러에서 45억 달러로 증가하여 25% 증가하였음

< 한국의 M&A 규모와 추이 >

(단위 : 억 달러)

	2007	2008	증가율
전세계 M&A	4조 1,692	2조 9,000	△30%
한국 전체 M&A (①)	645	417	△35%
국가간 M&A (②)	130 (100)	133 (100)	△2%
Outbound M&A	94 (71)	88 (66)	△5%
Inbound M&A	36 (29)	45 (34)	25%
국가간 M&A / 전체 M&A (② / ①)	20	32	12%p

자료: Thomson Reuters.

- 국내 기업들은 자금난 및 생존위주 전략으로 인해 중국, 일본에 비해 낮은 해외기업 인수 의향을 보이고 있음
 - 위의 결과는 해외기업 인수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국, 일본과 달리 국내 기업들은 해외기업에 다소 소극적이며, 오히려 인수대상이 되었음을 의미
 - 주원인은 원화약세, 외환보유고 불충분 등 거시경제적 이유와 기업들의 생존 위주 전략으로 풀이됨

< 한중일 M&A 규모 변화 추이 >

(단위 : 억 달러)

	한국			중국			일본		
	2007	2008	변동율	2007	2008	변동율	2007	2008	변동율
전체 M&A	645	417	△35%	890	1,590	44%	1,680	1,616	△4%
국가간 M&A	130	133	△2%	520	784	51%	727	844	16%
Outbound M&A	94	88	△6%	291	478	64%	370	740	200%
Inbound M&A	36	45	25%	229	306	34%	357	104	△71%

자료: Thomson Reuters.

샌드위치 코리아 악화 가능성 크다

□ GDP대비 M&A 비중 비교

- (GDP대비 Outbound M&A 비중 역전) GDP대비 Outbound M&A 비중에서 중국과 일본은 증가, 한국은 0.06%p 감소하여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추월
- (GDP대비 국가간 M&A 비중) GDP대비 국가간 M&A의 비중은 2007년에 비해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증가
 - 중국의 경우 2008년 GDP 대비 전체 국가간 M&A규모는 2.29%로 동북아 3국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였음
 - GDP대비 Outbound M&A의 비중은 2007년 한국 0.96%, 중국 0.85%, 일본 0.82% 에서 2008년 한국 0.90%, 중국 1.43%, 일본 1.64%로 변화
 - GDP 대비 Inbound M&A 비중은 중국과 한국은 증가하고 일본은 감소
- 특히, 2008년 세계 경제불안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의 GDP대비 Outbound M&A 비중이 한국을 추월
 - GDP대비 Outbound M&A의 규모는 2007년 한국이 0.96%로 가장 높았으나 2008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1.43%, 1.64%로 한국의 0.90%를 추월
 - 결과적으로 한국의 GDP 대비 M&A 비율은 세계평균은 물론 2005년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네덜란드 보다 낮음

< 2007~2008 한중일 GDP대비 M&A >

(단위 : 억 달러)

	한국		중국		일본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명목 GDP (①)	9,819		3조 4,200		4조 5,000	
국가간 M&A (②)	130	133	250	784	727	844
Outbound M&A (③)	94	88	291	478	370	740
Inbound M&A (④)	36	45	229	306	357	104
국가간 M&A / GDP (② / ①)	1.32%	1.35%	1.52%	2.29%	1.62%	1.88%
Outbound M&A / GDP (③ / ①)	0.96%	0.90%	0.85%	1.43%	0.82%	1.64%
Inbound M&A / GDP (④ / ①)	0.37%	0.46%	0.67%	0.90%	0.79%	0.23%

자료: Thomson Reuters.

3. 한중일 국가간 M&A의 특징 비교

- 경제위기를 계기로 전략적 M&A에 나서고 있는 중국,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미래지향적 고려가 부족
 - 중국은 산업전반의 기술격차 해소 및 신성장동력 기반 구축, 일본은 미래성장 산업 위주의 전략적 M&A에 나서고 있음
 - 반면 한국은 해외자원개발 투자 및 단순 해외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M&A 활동이 대다수를 차지

< 2008년 한중일 국가간 M&A 특징 비교 >

(단위 : 억 달러)

	한국	중국	일본
전체규모와 변동율	133 (△2%)	784 (51%)	727 (16%)
전세계 국가간 M&A 대비 비중	1.2%	7.0%	6.5%
Outbound : Inbound	66 : 34	61 : 39	87 : 13
유형	자원확보형	기술추격형	성장동력확보형
주요목적	자원확보 해외시장 점유율확대	전방위적 기술 습득 제조업 부가가치 향상 원부자재 확보	신산업확대 해외금융네트워크 확대
대상 업종/기업	해외유전, 광구, 시장점유율 1위 업체	부품소재, 전력 및 에너지, 공업, 통신	첨단기술, 의료산업, 금융업
주요 사례	호주 맥아더 광산 멕시코만 해상유전 수퍼리어 액세스	캐나다 Dyrex사 호주 Midwest 철광석	인도 란박시 제약 미국 모건스탠리

샌드위치 코리아 악화 가능성 크다

□ 중국

○ 중국은 해외기업 인수분야를 다양화하여, 전방위적인 기술 수준 향상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M&A부문의 다양화) 전통적으로 M&A대상인 금융, 부동산의 비중은 축소되고 부품소재,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M&A가 활성화
 - 부품소재 30%, 전력 및 에너지 11%, 공업 및 제조 9%, 통신 8% 등 이전과는 다른 고른 업종 분포

< 2007~2008 중국의 M&A 부문 비교 >

순위	1	2	3	4	5
2007	금융	부동산	부품소재	산업서비스	에너지
2008	부품소재	금융	에너지	부동산	산업서비스

자료: Thomson Reuters.

- (기술격차의 축소) 중국의 해외기업 M&A 규모가 확대되고 분야도 다양해지면서 한중간 기술격차 축소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이 지금의 중국과 비슷한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M&A 방식보다 Greenfield 방식으로 기술개발을 진행
 - Greenfield방식은 해당국가 내에서 모든 부가가치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효용증가의 효과가 뛰어나지만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음
 - 따라서 중국이 해외기업 M&A를 통한다면 과거 한국보다 더 빠른 기술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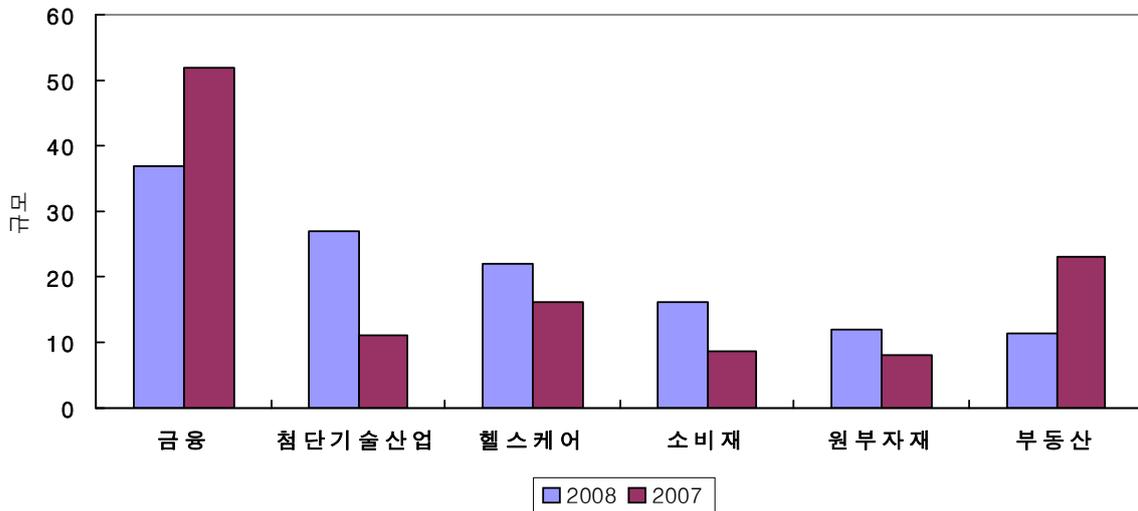
□ 일본

○ 일본은 비축된 현금과 엔화의 가치 상승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가가 급락한 해외기업들을 매수하여 미래의 성장동력기반 마련에 주력하는 모습

- (풍부한 자금력) 일본 기업들이 그동안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비축한 현금은 1조 2,500억 달러에 달하며 최근 엔화가치가 주요통화에 대해 25%나 상승
- 반면 유수의 해외기업들이 금융위기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면서 일본이 해외기업들을 좋은 조건에 매수할 절호의 기회를 맞음
- 전세계적으로 가장 풍부한 일본의 자금력은 일본의 Inbound M&A는 71% 감소하는 주요원인으로도 작용

< 2008년 일본의 주요 M&A 부문 >

(단위 : 십억 달러)



자료: Thomson Reuters.

- (특정 M&A 부문에 집중) 일본은 기존의 일본 제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한편 미래 성장 동력기반 마련에 집중
- 2007년 대비 2008년 일본 M&A는 금융과 부동산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첨단기술, 의료산업 등 고부가 신성장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 다이치 산교가 인도의 대표적인 의료제약 벤처기업인 량방시연구소의 지분을 43% 인수한 것처럼 신흥공업국의 유망기업에 대한 M&A 투자 확대

샌드위치 코리아 악화 가능성 크다

- (금융부문 M&A) 금융부문 M&A규모는 줄었으나 우수기업 중심의 적극적인 기업인수를 지속하고 있음
 - 한편 비츠비스 UFJ의 모건스탠리의 지분 22% 인수 (78억 달러), 노무라홀딩스의 리먼브라더스 아시아, 유럽, 중동 법인 인수 (2.2억 달러), 미츠호 은행의 메릴린치 투자 등으로 유망 기업을 중심으로 금융부문 M&A도 확대하고 있음
 - 이 같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일본 금융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

□ 한국

- 한국은 중일대비 소극적 해외기업 인수 기조를 유지하면서 **Outbound M&A**는 해외자원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나 미래지향적 요인이 현저히 부족
- (M&A 부문별) 2008년 한국의 **Outbound M&A** 투자 총액은 감소하였으나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
 - 한국의 2008년 해외자원개발투자는 석유·가스 42억 달러, 6대 광물 15억 달러 등 5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7% 상승
 - 식음료, 도소매, 전선 분야에서 해외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현지 1위 업체 인수도 진행되었음
 - 사례별로는 포스코가 호주 광산업체 맥아더사에 4.1억 달러, 삼성물산과 석유공사가 멕시코만 해상유전 개발에 12억 달러 투자한 것이 대표적
- (미래지향적 요소가 결여) 첨단기술 습득, 성장동력 확보, 향후 인수 프리미엄 등 미래 지향적 요인은 절대적으로 부족
 - 기업가치하락으로 인한 인수가격의 하락은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경제 회복기에 본격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
 - 하지만 첨단 기술, 의료산업 등의 첨단 사업에서의 인수활동의 거의 없음

4. 정책점 시사점

- 한동안 중국과 일본의 국가간 **M&A** 확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고, 이 과정에서 한중일 미래성장동력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첨단기술 확보, 신성장동력 발굴 등 기술지향적 해외 **M&A**를 확대
 - 이번 경제위기로 GDP대비 M&A 비중이 한중일 중 최하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기업의 M&A를 통한 미래 준비가 부족해졌다는 의미
 - 기업들은 Greenfield형 기술개발에 치중하지 말고, 경제위기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BT, NT, RT 등 첨단 미래 기술 분야의 선진국 벤처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인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정부도 미래 지향적인 해외기업 M&A는 별도로 관리하고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의 차별적 지원책을 마련
 - 금융부분의 **M&A** 투자를 확대하되, 지역법인 또는 사업부 단위의 부분 **M&A**를 적극 고려
 - 현재 금융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기업 가치가 가장 하락한 산업으로 경기회복기에 높은 프리미엄이 기대되며, 법인단위, 사업부 단위의 매각도 빈번히 진행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업들은 경기회복기를 감안하여 금융업종에서의 지나친 해외투자 중단과 축소를 지양하고 국내 금융업의 선진화 및 해외진출을 위한 선진업체의 부분적 인수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중국과 일본은 이런 기회에 글로벌 금융업 지분인수 등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노무라 증권이 리먼브라더스 유럽 법인을 2달러에 취득한 것은 좋은 사례

샌드위치 코리아 악화 가능성 크다

- (해외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보강) 해외기업 M&A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M&A를 위한 금융지원기능, M&A 전문인력 등이 부족하여 해외기업 M&A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결과적으로 한국의 GDP 대비 M&A 비율은 세계평균은 물론 2005년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네덜란드 보다 낮음
 - 해외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금융, 인재, 법제도 인프라를 강화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연기금과 생명보험 등의 기관투자가가 국내 기업의 해외 M&A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투자은행 기능을 활성화 하고 글로벌 전문인력의 영입과 육성 노력 등이 요구됨

- (한중 기술격차 축소, 한일 기술격차 확대에 유의) 당분간 중국의 경우, 고기술 해외업체, 일본의 경우, 신기술 해외업체에 대한 인수추진이 확대될 것이므로 이로 인해 샌드위치 코리아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
 - 이번 경제위기 동안의 중국과 일본의 해외기업 M&A 확대로 중국의 기술추격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반면, 첨단기술 분야의 선진기업 인수를 확대한 일본은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증가하였음
 - 577전략 등 국가 R&D 전략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과학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
 - 특히 기술수준이 높은 국내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해외기업에 M&A 당하지 않도록 정부의 기술금융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M&A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함 

이주량 연구위원 (3669-4334, jryanglee@hri.co.kr)

전해영 연구위원 (3669-4406, haloween@hri.co.kr)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지표 추이와 전망							
		2007(P)	2008(E)	2009(E)	상반기	하반기	
국민 계정	경제성장률 (%)	5.0	4.1	3.1	2.2	3.8	
	최종소비지출 (%)	4.7	2.3	1.1	0.9	1.2	
	민간소비 (%)	4.5	2.0	0.8	0.7	0.9	
	총고정자본형성 (%)	4.0	0.3	2.1	1.3	2.9	
	건설투자 (%)	1.2	-1.4	2.2	1.5	2.8	
	설비투자 (%)	7.6	1.5	2.3	1.2	3.3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	60	-59.3	25	15	10	
	통 관 기 준	무역수지 (억 \$)	146	-130	54	20	34
		수출 (억 \$)	3,715	4,224	4,558	2,194	2,364
		증가율 (%)	(14.1)	(17.4)	(4.0)	(2.5)	(5.4)
		수입 (억 \$)	3,568	4,354	4,504	2,174	2,330
		증가율 (%)	(15.3)	(22.0)	(0.8)	(-1.5)	(3.1)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5	4.7	3.3			
	실업률 (%)	3.2	3.3	3.5			
	국제유가(Dubai, \$)	68	94	60			
금 용	원/\$ 환율 (평균, 원)	929.0	1,103.4	1,200.0			
	국고채금리 (3년만기, 평균 %)	5.23	5.27	4.8			